

21世紀 知識 基盤 經濟를 위한 情報化 戰略

21세기의 시작이 불과 9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새로운 천년에는 또 다른 세계 문명이 탄생될 것으로 생각하여, 많은 나라들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분주하다. 우리 사회는 '현실 안주적이고 단기 성과 지향적' 속성이 강하다. 내세와 현실 가치를 중시하는 유교적 영향을 받은 데다가, 수많은 전쟁이나 정변이 앞날에 대한 투자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개발 과정에서 지나치게 외형 성장 중심의 가치관을 형성해 온 까닭이다.

현실 문제에 매달리고 빠른 성과를 보려는 사회에서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부실해지고 환경 변화의 적응 속도가 늦어진다. 한국은 20세기에든 세계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뒤처짐으로써 후진국으로서 갖은 시련을 겪은 경험이 있다. 미래에 대한 대비와 투자가 없으면 환경 변화에 대한 耐性이 없어 그 사회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불확실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럼 새 천년에 성립될 미래 사회에 대한 준비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 것일까.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식의 풍부한 생성과 원활한 유통을 위한 정보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정보화는 기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인 셈이다.

국내 정보화 정책은 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것으로 20여년의 연륜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경제의 정보화 수준은 선진국은 물론 경쟁국보다도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97년말 기준으로 한국의 정보화 수준은 23위이다. 이는 싱가포르(10위), 일본(13위), 홍콩(14위), 대만(21위)과 같은 아시아 경쟁국들에게 뒤지는 것이다. 더욱이 국내 정보화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정보화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점이다. 수도권 중심으로 정보화 투자가 추진되고, 인터넷 활용 비용이 높고 속도가 느린 점과 같은 이유 등으로 중소기업이나 일반 서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화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오랜 기간 동안 정보화 정책을 추진했는데도, 이의 성과가 미흡한 것은 정보화 정책 역시 단기 성과주의 함정에 빠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원활한 정보 공급과 손쉬운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인프라 구축보다는 초저가 PC 공급과 같은 하드웨어 보급 위주의 물량 공급 정책을 추진하거나, 행정 전산망이나 초고속정보기반

구축과 같은 대형 사업에서 정책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어 정보화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 그리고 상호 연계성이 훼손된 것은 이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제 정보화 정책은 단기 성과보다는 새 천년의 지식 기반 사회를 정착시키는 필수 요건으로서 내실을 다지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첫째, 하드웨어적 정보화와 소프트웨어적 정보화의 균형 있는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화의 궁극적 목적은 유용한 정보 혹은 지식의 신속한 유통과 손쉬운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 확보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얼마나 넓은 고속도로를 보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유용한 정보들이 흘러 넘치느냐에 있다. 따라서 유용한 정보의 습득, 창조, 확산, 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정보화 전략이 중요하다.

둘째,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정보화여야 한다. 지식경제 하에서는 정보화의 혜택이 소수의 계층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 간주되어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정보화의 계층별 혹은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저소득 계층, 중소기업, 낙후지역의 정보화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불가피하다.

셋째, 지식의 습득과 유통보다 지식의 접근과 활용에 초점을 맞춘 정보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정보·지식의 활용에 까다로운 노하우와 기술적 숙련이 필요하고, 그 이용에 대한 비용 지출이 막대하다면 아무리 고도의 정보화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지식경제 혹은 지식사회의 실현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지식이 가치 있는 것은 그것이 적재 적소에 손쉽게 활용될 때이다. 따라서 정보 인프라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속 및 검색 등의 기술개발, 정보 인프라 사용 비용의 인하,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덧붙여 강조할 것은 지식 기반 경제를 위한 정보화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각 부처별로 제각기 추진할 경우에 중복 투자 등으로 자원의 낭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통부와 한국전산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식 국가 형성을 위한 정보화 계획이 수립되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